



송규헌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경영대학원 석사
서울대 AIMP 과정
IBM AP HQ General Business
한국IBM(주) 통합마케팅 본부장
현재 (주)오픈베이스 사장

●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오픈베이스는 유아기를 지났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립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해 왔고 수익도 꾸준히 났습니다. 문제는 성장기조를 더 탄탄히 하기 위해 사업내용을 충실히 하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기존 사업라인을 다각화하여 생산성을 올리고, 성장동력을 촉진시키는 신사업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송규현 사장의 첫인상은 전혀 피곤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자신감 넘치는 경영자의 모습이다.

올해 9월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오픈베이스는 연평균 15% 성

자료관이나 EDMS 등과 연대해서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채널사업으로 다른 기업들과 오픈베이스의 검색엔진을 협력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인 사업은 솔루션 SI 부문 중 기업이나 조직의 내·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무선이라는 채널을 통합시키는 유·무선 통합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hannelM’은 기업이나 조직 내의 PDA를 이용하여 모바일 비즈니스를 하는 데 필요한 업무환경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ChannelM은 이동성·표준화·편의성·유연성·확장성·경제성을 지향하는 모바일 PDA 솔루션이다.

오픈베이스 전문경영인, 송규현 사장

“성장도 균형을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장물을 기록하며 IT 전문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다. 사람의 바이오리듬처럼 기업의 경영도 상황과 하향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요즘처럼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속에서도, 오픈베이스는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보이는 데는 나름대로 비결이 있을 법하다. 힌트를 주시면, 사람에게 있다. 오픈베이스가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프로페셔널한 리더인 송규현 사장과 110여 명의 조직원들이다. 역시 그들도 프로이다.

송규현 사장은 한국IBM에서 18년 동안 마케팅본부장 등을 지냈고, 2000년부터 오픈베이스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IBM에서 근무할 때 고객으로 이어진 많은 인맥은 오픈베이스를 경영하면서도 밑거름이 되었다.

오픈베이스는 솔루션 SI(검색, 모바일), 스토리지 솔루션, 콘텐츠 네트워킹, 서버 솔루션 개발이 주된 사업내용이다. 지난해에는 5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는 6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할 정도로 검색분야에서는 제일 오래된 기업이고, 사업성과도 높다.

올해 중점 사업추진 방향은 솔루션 분야인데, 전략적 솔루션 소싱 및 마케팅을 통한 SSP(Storage/Server Solution Provider)를 지향하는 것이다.

10여 년에 걸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된 오픈베이스의 주요 상품인 ‘엑스텐(XTEN)’ 엔진은 지난 5년 이상 인터넷 서비스 경험을 통해 최적화되어 있을 정도로 전문화된 검색엔진이다. 올해에는 XTEN 엔진도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검색엔진을 가지고 SI형태로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번들(bundle)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검색을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베이스는 검색분야 시장에서는 제일 오래된 기업이고, 사업경력이 풍부하다. 여기에다 유능한 맨파워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필수 조건이 되었다. 송규현 사장은 직원들을 가장 자랑스러워 한다. 직원과 경영자가 기업의 공유가치를 설정하고 목표한 것들이 빠른 시일에 가시화될 때 경영자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경영철학에 대한 질문에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듣고 보니 분명히 있었다.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주문하는 것은 고객과의 신용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고객의 입장을 염두에 두자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용이란 참 어려운 문젠입니다. 오픈베이스가 10년동안 쌓아 온 밑바탕이 신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꾸준함과 중용입니다. 일시적으로 잘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오래 잘하고, 한 곳으로 나아가면서 그 분야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장도 균형을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픈베이스는 Business Solution Provider의 역할을 넘어, e-Business Enabler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10년간 쌓인 경영 노하우는 비즈니스 시스템의 안정된 기반을 보장한다. 오픈베이스는 내부의 힘이 이미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송규현 사장은 자신한다. 유아기를 지났으니 앞으로 어른노릇을 충실히 수행하는 오픈베이스의 모습을 기대해 보아도 좋다.

어려운 경영환경을 비켜가는 비결은, 바로 변화의 리듬을 즐기는 데 있다는 것을 송규현 사장과 인터뷰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Users** 글 | 정윤희 편집장 unigood@paran.com